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책임연구원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지표들과 갖는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둘째,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행사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다양한 성과지표들과 이들의 시민권적 경험과 인권의식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주요변수로 아동·청소년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인권현황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상의 자유 행사와 관련한 인권 효능감 등의 변수들이 있다. 또한 시민권적 권리 행사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결사와 집회의 권리행사 경험, 청소년 자치활동 관여 정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 인권의식 및 시민권적 권리 행사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폭력 및 학대 경험, 인권 및 시민권적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보여주는 지지적인 태도 및 환경의 경험 정도, 그리고 인권관련 인식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권리행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한 결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기 위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생각, 학교폭력피해 경험 등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선형 및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tata MP 13.0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과 부모와 학교가 이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도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부모의 아동 인권 존중 정도,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 보장정도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한 변수들이 더욱 의미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권의식, 인권관련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의식과 더불어 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를 통해 경험하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제언은 첫째, 청소년에 대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인 경험으로서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지지와 존중의 경험은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 발달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입을 위해 이들의 인권 및 시민권적 의식과 경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청소년 인권의식, 시민적 권리, 인권효능감, 인권관련 경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이 이들의 다양한 성과지표들과 갖는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임.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에 각각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였음.
-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성과지표들, 즉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경험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인권 관련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은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 인권 현황에 대한 인식, 인권 효능감, 가정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아동 인권 존중 정도, 결사 및 집회 경험 정도가 포함되었음.
- 인권의식 및 인권 관련 경험과 연관지어 고찰한 성과지표에는 자살생각, 행복감, 각종 폭력 피해 경험, 학대 경험 등이 있음.

3. 연구결과

-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과 부모와 학교가 이들의 인권 관련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도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부모의 아동 인권 존중 정도,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 보장정도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한 변수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권의식, 인권관련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의식과 더불어 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경험하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인 경험으로서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경험을 축적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지지와 존중의 경험이 중요함.
- 주관적 행복감,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 발달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입을 위해 이들의 인권 및 시민권적 의식과 경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아동·청소년의 인권	9
2.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경험	14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3
2. 변수	23
3. 분석방법	29
IV. 연구 결과	31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33
2. 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3
3. 청소년 인권(시민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1
4. 청소년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 청소년 성과지수와의 상관관계	46
V. 논의 및 결론	53
참고 문헌	59

표 목 차

<표 II-1-1> 제 3·4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권고사항	12
<표 II-1-2>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13
<표 II-2-1> 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
<표 III-2-1> 연구에 활용된 변수	23
<표 IV-2-1>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35
<표 IV-2-2> 인권의식	38
<표 IV-2-3> 인권효능감	40
<표 IV-3-1> 결사·집회 경험률	43
<표 IV-3-2>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	45
<표 IV-4-1> 학교폭력 피해경험	48
<표 IV-4-2> 주관적 행복감	50
<표 IV-4-3> 자살 생각	52

제 I 장



서 론

제 | 장 서 | 론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논의는 발전국가의 틀 안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의 불가피한 희생양이었던 노동과 여성의 영역에서 시작해, 향후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장애, 노인, 아동의 영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최근 들어 성적 소수자, 군인, 다문화, 그리고 난민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제도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 2001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¹⁾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되었다. 또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판교 테크노벨리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의 손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생명권의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와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학교 안에서의 폭력, 왕따, 차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시민권 행사와 관련한 경험은 이들의 인권 신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신, 박가나, 2014; 김현경, 김신영, 2015; 이용교, 1999; 정건희, 2009). 인권의식과 시민권 행사 관련 경험은 상호 연관되어있지만, 인권의식이 곧바로 시민권의 행사와 관련한 경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독립적인 발달경로를 밟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인권교육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거나(김선희, 염미경, 2013),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요인들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고찰하였다(김아영, 2012). 다른 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요인들이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 등의 부정적 지표들과 갖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강명숙, 2012).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시민권 행사의 경험 요인 등의 서로 상이한 변수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인권의식과 시민권 행사의 상호 독립적인 요인구조를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시민권 행사의 경험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폭력 및 차별 등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경험, 그리고 학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지표들과 갖는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들 관계에 대한 기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을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들 변수들의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존의 아동·청소년 실태 관련 연구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현황과 실태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인권관련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인권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로 그 초점을 이동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인권

교육 등으로 형성되는 인권의식과 더불어, 그에 기반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인권과 관련된 경험 및 인권의 행사(行使)와 행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둘째,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행사의 경험이 이들의 발달적 결과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행사(行使)와 다양한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의 인권
2.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경험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의 인권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아동은 심리적·사회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부모의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보호와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며 법적으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같이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와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할이 컸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협약은 1959년 채택한 ‘아동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20주년 기념의 해인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로 지정하면서부터 매년 위원회를 열어 토의하면서 1987년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되었다(이배근, 1998;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이처럼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문은 유엔의 기본 원칙과 인권선언 등 협약의 정신이 담겨 있다. 본문 54개 조항은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아동권리에 관한 규정과 협약의 법적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는 부칙으로 서명·비준·가입과 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이순자, 나성식, 김현경, 이효숙, 2014; 이순형, 민하영, 이소은, 이완정, 황혜신, 이강이 외, 2013).

이 협약은 무차별원칙(차별금지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참여의 원칙 등 4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차별원칙으로 차별금지의 원칙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항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제2조 2항에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본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에 있어 아동들 간의 정당한 차별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협약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혜택 받지 못한 세계 모든 국가의 취약아동들에게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김승권, 2012).

둘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59년 아동권리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원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3조 제1항). 또한 제3조 2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결정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승권, 2012; 이순자 외, 2014).

셋째,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은 아동이 생명존중과 발달을 보장받기 위해 질병퇴치, 식수제공, 보건 질 향상, 영양공급 등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제1항)”와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2항)”로 명시되어 있다.

넷째, 참여의 원칙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 및

권리 보장을 뜻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항)”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제2항)”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 원칙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 과정 중에 아동의 의견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승권, 2012).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우리나라는 유엔국제협약에 비준한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국제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아 왔다. 제1차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1994년도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보고서는 2000년 5월에 제출하였다(변용찬, 1999). 제3차와 제4차 보고서는 2008년에 제출함으로써 2011년 9월에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심사받고 그해 10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7개 항목으로 나누었으며(<표 II-1-1>), 총 41개 영역에 대해 이행을 촉구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이후 우리나라는 2017년 6월까지 41개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5·6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지표체계를 산출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을 6개의 하위영역 즉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로 구분하였다(천정웅, 2014). 본 연구에서는 <표 II-1-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항목의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기에, 제3·4차 보고서의 7개 영역 중에서 ‘일반원칙’과 ‘시민권과 자유’ 항목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김승권, 2012).

첫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신속히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이주노동자가정 등

소수집단 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식제고와 대중교육캠페인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사법, 행정, 법률, 사업, 정책 등 전반에 걸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셋째,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이다.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15세 미만 아동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넷째,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존중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종교적 다양성과 채식주의자와 이슬람권 등의 아동을 위한 식단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결사·집회의 자유이다. 위원회는 정치관련 활동 및 언급이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도시지역 아동에 비해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에서도 정치활동 및 집회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협약 이행의 부족함을 의미하며, 아동들에게는 인권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1-1 제 3·4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권고사항

항목	주요 주제
일반이행조치	기존 권고사항, 유보, 입법, 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 모니터링, 자원의 할당, 자료수집, 보급·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국제협력, 아동권리와 체계
일반원칙	차별금지, 생명권·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
시민권과 자유	출생신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차별,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가정환경 상실아동, 입양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정신건강, 청소년 보건,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 상황의 아동,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성적착취, 인신매매,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소년사법운영,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기타	특별보호조치,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후속조치 및 배포

출처: 김승권(2012). 아동권의 국제적 관점과 한국사회의 현실.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6.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 자료 2011-04), pp.465-489.

표 II-1-2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1-1-2-2.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1-1-2-3.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 가해 경험*
1-2-1-2. 차별 피해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2-4.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5.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2-1-2.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4-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4-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2.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경험

1)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권(Human Right)은 출생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소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12)는 인권을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권리, 인간이기에 가져진 도덕적 권리,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 구분하였으며,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6)는 이 중 도덕적 권리가 모든 권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인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한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김자영, 2012; 박범철, 2014).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권리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권리이며 성인과 동일한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오정수, 정익중, 2014).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동적 권리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능동적 권리는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참여 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이순자 외, 2014; 이해원, 2006).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의무로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 함양과 하나의 교육적 행위로서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의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태도로서(김자영, 2012),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삶 속에서 인권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권에 관한 교육적 참여와 경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는 인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아동기로 이때 인권 교육 및 경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아동기 때에는 자기중심성이 생겨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구정화 외, 2004; 김자영, 2012).

2) 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내적요인, 외적요인, 학교요인, 개인적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표 II-2-1>).

내적요인에는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개념 중의 하나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김혜정, 2002), 김상미, 남진열(2014)의 연구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인권의식에 긍정적으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유성남(2008)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결국 타인을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면서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 및 옹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Zellman & Sears, 1971; 김자영, 2011; 이수연, 문용우, 2002).

다음으로 외적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차별피해경험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즉 가족, 부모, 친척,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자란 청소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며(김원철, 2001; 임유진, 2001),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사회적 능력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문성원, 한종철, 1996; 민하영, 유안진, 1996), 이는 내적요인인 자아존중감과도 연결이 된다. 즉,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 가족,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결국 인권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차별피해경험은 성별, 가정형편, 사는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유성렬(201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요인, 경험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 경험요인으로 투입한 차별경험 변수결과를 보면 개인적 특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인권이 주변으로부터 덜 존중받고 있다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현경, 김신영(2015)의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을 인권의식,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권존중학교문화, 인권상황, 차별경험, 학교운영참여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으로는 인권교육, 학교교실문화, 학교자치활동, 사생활보호가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이는 등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구정화 외, 2004). 이렇듯 인권교육은 지식을 통하여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적 의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며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강경욱, 2012; 김선희, 염미경, 2013).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성경숙(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 욕구와 학교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는데,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인권교육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권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에서 보장되는 권리 수준은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뒷받침 하는 근거로 이승미(1999)연구에서도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의식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인권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선희, 염미경(2013)과 김자영(2012)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이 단기적, 일회성 성향의 교육이 많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김영신, 박가나(2014)의 연구에서는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하면서 인권태도를 인지적태도와 정서적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학급 풍토의 친인권적인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 친인권적인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특성상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발생되어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문화가 형성되는데, 특히 친인권적인 학교문화는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자치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회, 학생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정건희, 2009). 정건희(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자치활동이나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인권의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자율적 판단과 의견을 학교자치활동 경험이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보며 자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는 것이라 보았다(이용교, 1999).

넷째 사생활 보호는 학교에서 용모, 소지품검사, 복장 등에 대한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조미숙(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79.2%가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사생활 보호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학교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인권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렬, 2013).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연령,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미(1999)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권의식 발달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의식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김자영(2012)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김도환, 2008; 박봉규, 2007)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더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정, 2002; 유성렬, 2013; 장지원, 이양희, 2015). 반면 이지수(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이 비해 인권의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현실에 순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 것으로 이해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적인 부모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양육한 것이 자녀의 인권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현경, 김신영 2015; 박봉규, 2011; 송은아, 2005).

표 II-2-1 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변수
청소년의 인권	내적요인	자아존중감
	외적요인	사회적지지, 차별피해경험
	학교요인	인권교육, 학교교실문화, 학교자치활동, 사생활보호
	개인적측면	연령,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

3) 청소년의 인권에 의해 영향 받는 요인

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는 달리 인권에 의해 영향받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 졌다. 요인은 크게 학교생활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폭력가해행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선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정준교(2002)는 인권상황을 학생인권 1인자(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보장,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 자치활동 보장)과 학생인권 2인자(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학교의 인권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석원, 현승숙(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 인권관련 경험을 인권침해, 인권교육, 인권의식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을 받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석(2012)의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3가지 요소로 보고 분석하였으며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권감수성 즉 인권 관련 문제 상황을 높게 지각하고 잘 해결할수록 학생들은 분명한 학습목표나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인권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박재숙(2010)은 이 중 인권보장을 참여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권을 다시 자유보장과 참여보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유보장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생회모임과 자치활동 등을 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종교나 생각의 자유를 인정해줄수록 이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반면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 참여보장 수준이 낮으며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용교, 2004).

자아존중감의 경우, 김아영(2012)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교육경험에 따른 인권보장,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영향성을 살펴보았다. 박재숙(2007)은 인권민감성을 인권관련 상황에서의 지각과 타인의 정서인지 및 결과예측 지각, 인권이슈에 대한 책임지각 총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면서 인권민감성이 높을수록 신체·물리적 폭력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홍봉선, 아영아(2012)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박재숙(2007)과 마찬가지로 인권감수성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정서공감능력이 있으며, 이를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능력이 높은 청소년이 신체폭행, 폭력, 따돌림, 가해행동 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지 및 민감성이 타인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청소년의 인권관련경험과 인권의식의 관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인권관련경험 차별피해경험, 인권교육경험, 사생활보호경험, 학교자치활동경험으로 구성하여 인권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는 지역이나 외모,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김경준, 2010).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도 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유성렬, 2013).

인권교육의 경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권리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성정숙, 1999). 이 같은 인권교육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인 인권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인권교육경험과 인권의식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일회성 교육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사생활보호경험에서는 청소년의 70.2%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용모, 소지품검사, 복장 검사 등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조미숙, 2003), 또한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인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렬, 2013). 이러한 학교에서의 사생활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학교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지발달과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치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인권의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정건희, 2009). 그 이유로 학생회, 학생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같은 학교자치활동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권에서 중요시하는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 III 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변수
3. 분석방법

제 III 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변수

이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과 설문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III-2-1>와 같다.

표 III-2-1 연구에 활용된 변수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	문4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 - ④ 매우 존중 받는다	.811
인권의식	문44.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 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67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인권효능감	문4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76
부모의 아동인권 존중	문18.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주신다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주신다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지로(직업)을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주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847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문30.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716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611
학교정책 학생참여 존중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545
학교 각종검사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 용모(머리 모양 · 길이 ·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주일에 1-2회 ⑤ 1주일에 3회 이상	.708
결사 및 집회 경험률	문36.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전혀 없다 - ④ 자주 있다	.648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부모님 학대경험	문2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 신체적인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주일에 1-2회 ⑤ 1주일에 3회 이상	
선생님 학대경험	문21. 최근 1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 신체적인 벌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주일에 1-2회 ⑤ 1주일에 3회 이상	
학교폭력 피해경험	문22.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3) 따돌림을 당함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 협박을 당함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주일에 1-2회 ⑤ 1주일에 3회 이상	.726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문23.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2) 협박을 당함 (3) 성희롱(놀림)을 당함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한 번도 없음 ② 일 년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주일에 1-2회 ⑤ 1주일에 3회 이상	.664
자살 생각	문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행복감	문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④ 매우 행복하다	
학교 내 청년활동 지지도	문28.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④ 매우 지지한다	
가정 내 청년활동 지지도	문28. 가정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④ 매우 지지한다	
성 피해	문4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 인권 의식

(1)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부터 “매우 존중 받는다”까지 14점까지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정, 학교, 지역, 나라 전체, 그리고 사이버 공간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11$ 이다.

(2) 인권 상황 의식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상황 인식을 측정하였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등의 7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67$ 이다.

(3) 인권 효능감

아동과 청소년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권 효능감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세 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76$ 이다.

2) 인권 경험

(1) 부모의 아동 의사결정 존중

의사 결정 시 부모님이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주신다” 등의 4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47$ 이다.

(2)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회 운영과 관련한 학교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의 3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1)”부터 “아니다/잘 모르겠다(0)”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16$ 이다.

(3) 학교의 학생 비밀보장

학교에서 학생의 사적인 비밀을 보장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 참여와 관련한 질문의 일부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선생님은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등의 3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11$ 이다.

(4) 학교 정책 학생참여 존중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 참여와 관련한 질문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의 2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545$ 이다.

(5) 학교 각종 검사

학교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각종 소지품 검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일들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등의 3개 항목에 대해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3회 이상(5)”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08$ 이다.

(6) 결사 및 집회 경험

아동과 청소년이 결사 및 집회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변수의 측정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경험한 참여활동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의 2개 항목에 대해 “전혀 없다(1)”부터 “자주 있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48$ 이다.

(7)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정도

아동과 청소년의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치기구에 참여 및 관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과 같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1)”부터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4)”까지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3) 기타 아동·청소년 결과변수

(1) 학대 및 폭력 경험

학대 및 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근 1년 동안 부모에 의한 신체적 벌이나 모욕적인 말, 선생님에 의한 신체적 벌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각각 “한 번도 없음(0)”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적이 있음(1)”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배, 후배, 친구들부터 경험한 폭력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을 활용하였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등의 경험을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3회 이상(5)”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26$ 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에서 경험한 폭력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등 5개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들 질문에 대해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3회 이상(5)”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64$ 이다

(2) 주관적 행복감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1)”부터 “매우 행복하다(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살 생각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원 척도의 응답범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0)”와 “가끔 생각한다/자주 생각한다(1)”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경험,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 방법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종속변수들 중에서 자살생각과 같은 이산 변수 (binary variable)에 대해서는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종속변수가 연속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MP 13.1 (Stata Corp, 2013) 을 활용하였다.

제 IV 장

연구 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청소년 인권(시민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청소년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
청소년 성과지수와 의 상관관계

제 IV 장

연구 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총 7,412명의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남자는 4,280명 (57.7%), 여자는 3,132명 (42.3%)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13세부터 20세까지였으며 평균 15.2세였다. 가족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6,623명 (89.4%)가 양부모가정이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기타 유형이 각각 674명 (9.1%), 61명 (0.8%), 54명 (0.7%)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3,333명 (45.0%)가 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886명 (38.9%)가 중, 나머지 2,325명이 (31.4%)가 하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 별로는 대도시 3,280명(44.3%), 중소도시 2,922명 (39.4%), 읍면지역 1,210명(16.3%)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 3,408명(46.0%), 일반/특목/자율고 3,331명(44.9%), 그리고 특성화고 673명(9.1%)였다. 학업성적과 관련해서는 1,996명 (26.9%)가 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과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3,087명과 (41.7%) 2,325명 (31.4%)이었다.

2. 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을 측정하는 변수로 인권 존중정도,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사상의 자유 보장 인식 등의 변수를 고찰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학대와 폭력 등의 부정적인 경험과 부모와 학교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 활동에 대해 보여주는 입장 및 태도 등의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일련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성별, 나이, 거주지역,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의 모형1은 학대 및 폭력 변수와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변수를

투입하기 전에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2는 모형1에 학대 및 폭력 관련 변수들만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를, 모형3은 모형1에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들만을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모형4는 인구사회경제적 통제변수들과 학대 및 폭력 변수, 그리고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까지를 모두 투입한 최종 분석모형에 해당한다. 최종 분석모형인 모형4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표준회귀계수(베타: β) 값을 같이 제시하였다.

1) 인권 존중 정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V-2-1>에 제시하였다. 모형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08$, $F(12, 7218)=47.96$, $p<.001$).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B(S.E)=-0.03(0.00)$, $p<.001$),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사는 경우($B(S.E)=-0.04(0.01)$, $p<.01$), 학업성적이 중이나 하에 비해 높은 경우(중: $B(S.E)=-0.06(0.01)$, $p<.001$; 하: $B(S.E)=-0.17(0.02)$, $p<.001$), 경제적 수준이 중이나 하에 비해 높은 경우(중: $B(S.E)=-0.08(0.01)$, $p<.001$; 하: $B(S.E)=-0.19(0.02)$, $p<.001$), 그리고 인권 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B(S.E)=0.02(0.00)$, $p<.001$) 해당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본인의 인권이 더 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 존중 정도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 change}=.07$, $F(5, 7213)=114.12$, $p<.001$).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변수 별로 살펴보면 부모님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거나($B(S.E)=-0.13(0.01)$, $p<.001$), 선생님께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B(S.E)=-0.12(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나($B(S.E)=-0.15(0.02)$, $p<.001$), 사이버 폭력($B(S.E)=-0.14(0.02)$, $p<.001$), 그리고 성폭력($B(S.E)=-0.09(0.03)$, $p<.01$)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인권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아동의 인권존중 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19$, $F(5, 7213)=362.77$, $p<.001$).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할수록($B(S.E)=0.28(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인권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수록($B(S.E.)=-0.09(0.01)$, $p<.001$),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할수록($B(S.E.)=0.16(0.01)$, $p<.001$), 그리고 학교가 학생회의 활동을 존중할수록($B(S.E.)=0.05(0.01)$, $p<.01$)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존중 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S.E.)=-0.01(0.01)$, $p=.225$).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존중 의식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28$, $F(22, 7208)=128.06$, $p<.001$). <표 IV-2-1>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beta=0.30$)가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정책 및 태도 관련 변수들 중에서 학교가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beta=0.19$)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정도($\beta=0.10$), 그리고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beta=0.04$) 순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2-1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02+	0.01	-0.02+	0.01	-0.03*	0.01	-0.05***	0.01	-0.05
나이	-0.03***	0.00	-0.03***	0.00	-0.02***	0.00	-0.02***	0.00	-0.07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4**	0.01	-0.05***	0.01	-0.02*	0.01	-0.03*	0.01	-0.03
읍면지역	0.00	0.02	-0.02	0.02	-0.02	0.01	-0.02+	0.01	-0.02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3	0.02	-0.04+	0.02	-0.02	0.02	-0.03	0.02	-0.02
조손가정	-0.05	0.06	-0.05	0.06	-0.06	0.06	-0.05	0.06	-0.01
기타	0.04	0.07	-0.01	0.07	0.05	0.06	0.02	0.06	0.00
학업성적(Ref:상)									
중	-0.06***	0.01	-0.06***	0.01	-0.03*	0.01	-0.03**	0.01	-0.03
하	-0.17***	0.02	-0.15***	0.01	-0.10***	0.01	-0.09***	0.01	-0.08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경제적수준(Ref:상)									
중	-0.08***	0.01	-0.09***	0.01	-0.05***	0.01	-0.06***	0.01	-0.05
하	-0.19***	0.02	-0.17***	0.02	-0.13***	0.02	-0.12***	0.02	-0.09
인권교육경험	0.02***	0.00	0.02***	0.00	0.01**	0.00	0.01***	0.00	0.04
부모님학대경험			-0.13***	0.01			-0.05***	0.01	-0.05
선생님학대경험			-0.12***	0.01			-0.07***	0.01	-0.06
학교폭력피해경험			-0.15***	0.02			-0.10***	0.02	-0.05
사이버피해경험			-0.14***	0.02			-0.12***	0.02	-0.07
성적피해경험			-0.09**	0.03			-0.05+	0.03	-0.02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28***	0.01	0.26***	0.01	0.30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9***	0.01	-0.07***	0.01	-0.10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16***	0.01	0.15***	0.01	0.19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05**	0.01	0.05**	0.01	0.04
학교각종검사					-0.01	0.01	0.00	0.01	0.00
R ²	0.07		0.14		0.26		0.28		
F	47.96***		70.07***		149.03***		128.0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 상황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V-2-2>에 제시하였다. 모형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ext{-squared}=.05$, $F(12, 7216)=34.35$, $p<.001$).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B(S.E.)=0.15(0.01)$, $p<.001$), 나이가 많을수록($B(S.E.)=0.01(0.00)$, $p<.01$), 기타 가족유형에 비해 양부모가정의 경우($B(S.E.)=-0.19(0.06)$, $p<.01$), 학업성적이 중이나 하에 비해 높은 경우(중: $B(S.E.)=-0.06(0.01)$, $p<.001$; 하: $B(S.E.)=-0.13(0.01)$, $p<.001$), 경제적 수준이 중인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B(S.E.)=-0.06(0.01)$, $p<.001$), $p<.001$), 그리고 인권 관련 교육 경험의 많을수록($B(S.E.)=0.02(0.00)$, $p<.001$) 해당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의식 정도와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05$, $F(5, 7211)=6.82$, $p<.001$).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B(S.E)=-0.09(0.02)$, $p<.001$)이 아동과 청소년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 의한 학대 경험($B(S.E)=-0.02(0.01)$, $p=.07$), 선생님께서로부터 학대 경험($B(S.E)=-0.02(0.01)$, $p=.15$), 사이버 폭력($B(S.E)=-0.01(0.02)$, $p=.68$), 그리고 성폭력($B(S.E)=-0.01(0.03)$, $p=.75$) 피해 경험 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3은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아동의 청소년의 인권상황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6$, $F(5, 7211)=91.65$, $p<.001$).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할수록($B(S.E)=0.12(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인권의식을 보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수록($B(S.E)=-0.03(0.01)$, $p<.001$),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할수록($B(S.E)=0.11(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인권의식을 보였다. 반면, 학교가 학생회의 활동을 존중하지 않거나($B(S.E)=-0.04(0.01)$, $p<.01$),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는 경우($B(S.E)=0.02(0.01)$, $p<.05$), 더 높은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이해와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존중 의식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11$, $F(22, 7206)=41.34$, $p<.001$). <표 IV-2-2>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학교의 정책 및 태도 관련 변수들 중에서 학교가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beta=0.17$)와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beta=0.15$)가 아동과 청소년의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인권의식 정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정도($\beta=0.05$)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2-2 인권 의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15***	0.01	0.14***	0.01	0.12***	0.01	0.12***	0.01	0.13
나이	0.01**	0.00	0.01**	0.00	0.02***	0.00	0.02***	0.00	0.06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2	0.01	-0.02	0.01	-0.01	0.01	0.00	0.01	0.00
읍면지역	0.01	0.02	0.01	0.02	0.00	0.01	0.01	0.01	0.00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3+	0.02	-0.04+	0.02	-0.03+	0.02	-0.03+	0.02	-0.02
조손가정	-0.05	0.06	-0.05	0.06	-0.05	0.06	-0.05	0.06	-0.01
기타	-0.19**	0.06	-0.20**	0.06	-0.18**	0.06	-0.18**	0.06	-0.03
학업성적(Ref:상)									
중	-0.06***	0.01	-0.06***	0.01	-0.05***	0.01	-0.05***	0.01	-0.05
하	-0.13***	0.01	-0.13***	0.01	-0.10***	0.01	-0.10***	0.01	-0.10
경제적수준(Ref:상)									
중	-0.04**	0.01	-0.04**	0.01	-0.03*	0.01	-0.02*	0.01	-0.03
하	0.03 +	0.02	0.03*	0.02	0.05**	0.02	0.05***	0.02	0.04
인권교육경험	0.02***	0.00	0.02***	0.00	0.02***	0.00	0.02***	0.00	0.06
부모님학대경험			-0.02+	0.01			0.02	0.01	0.02
선생님학대경험			-0.02	0.01			0.01	0.01	0.01
학교폭력피해경험			-0.09***	0.02			-0.06**	0.02	-0.04
사이버피해경험			-0.01	0.02			0.00	0.02	0.00
성적피해경험			-0.01	0.03			0.01	0.03	0.01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12***	0.01	0.12***	0.01	0.15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3***	0.01	-0.04***	0.01	-0.05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11***	0.01	0.11***	0.01	0.17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04**	0.01	-0.04**	0.01	-0.03
학교각종감사					0.02*	0.01	0.02*	0.01	0.03
R2	0.05		0.06		0.11		0.11		
F	34.35***		26.35***		52.73***		41.34***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사상의 자유 보장 인식 (인권 효능감)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사상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V-2-3>에 제시하였다. 모형1의 결과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사상의 자유 보장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R\text{-squared}=.03$, $F(12, 7213)=20.12$, $p<.001$).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B(S.E)=0.04(0.02)$, $p<.05$), 학업성적이 중이나 하에 비해 높은 경우(중: $B(S.E)=-0.12(0.02)$, $p<.001$; 하: $B(S.E)=-0.23(0.02)$, $p<.001$), 경제적 수준이 중이나 하에 비해 높은 경우(중: $B(S.E)=-0.06(0.02)$, $p<.01$; 하: $B(S.E)=-0.13(0.02)$, $p<.001$), 그리고 인권 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B(S.E)=0.02(0.00)$, $p<.001$) 해당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상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를 보면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상의 자유 보장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 change}=.02$, $F(5, 7208)=32.41$, $p<.001$).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변수 별로 살펴보면 부모님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거나($B(S.E)=-0.11(0.02)$, $p<.001$),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B(S.E)=-0.07(0.02)$,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사상의 자유 보장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나($B(S.E)=-0.15(0.03)$, $p<.001$), 사이버 폭력($B(S.E)=-0.06(0.03)$, $p<.05$)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들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나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상의 자유 보장 의식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13$, $F(5, 7208)=229.04$, $p<.001$).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할수록($B(S.E)=0.34(0.01)$, $p<.001$),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수록($B(S.E)=-0.03(0.01)$, $p<.01$),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할수록($B(S.E)=0.16(0.01)$, $p<.001$), 그리고 학교가 학생회의 활동을 존중할수록($B(S.E)=0.11(0.02)$, $p<.01$)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S.E)=0.00(0.01)$, $p=.838$).

아동과 청소년의 사상의 자유 보장 의식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17$, $F(22, 7203)=66.15$, $p<.001$). <표IV-2-3>에

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beta=0.29$)가 아동과 청소년이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정책 및 태도 관련 변수들 중에서 학교가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beta=0.15$)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beta=0.06$), 그리고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정도($\beta=0.20$) 순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2-3 인권 효능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B	S.E.(B)	B	S.E.(B)	B	S.E.(B)	B	S.E.(B)	
성별(Ref:남성)									
여성	0.04*	0.02	0.01	0.02	-0.01	0.01	-0.02	0.02	-0.02
나이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2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읍면지역	0.02	0.02	0.01	0.02	0.01	0.02	0.00	0.02	0.00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2	0.03	-0.02	0.03	-0.01	0.02	-0.01	0.02	0.00
조손가정	-0.06	0.08	-0.06	0.08	-0.06	0.08	-0.06	0.08	-0.01
기타	0.02	0.09	-0.01	0.09	0.04	0.08	0.03	0.08	0.00
학업성적(Ref:상)									
중	-0.12***	0.02	-0.12***	0.02	-0.08***	0.02	-0.08***	0.02	-0.06
하	-0.23***	0.02	-0.21***	0.02	-0.14***	0.02	-0.14***	0.02	-0.10
경제적수준(Ref:상)									
중	-0.06**	0.02	-0.06***	0.02	-0.02	0.02	-0.02	0.02	-0.01
하	-0.13***	0.02	-0.11***	0.02	-0.04*	0.02	-0.04+	0.02	-0.02
인권교육경험	0.02***	0.00	0.02***	0.00	0.01*	0.00	0.01*	0.00	0.03
부모님학대경험			-0.11***	0.02			-0.01	0.02	-0.01
선생님학대경험			-0.07***	0.02			-0.03+	0.02	-0.02
학교폭력피해경험			-0.15***	0.03			-0.10**	0.03	-0.04
사이버피해경험			-0.06*	0.03			-0.04	0.02	-0.02
성적피해경험			-0.06	0.04			-0.02	0.04	0.00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34***	0.01	0.33***	0.01	0.29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3**	0.01	-0.02*	0.01	-0.02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16***	0.01	0.15***	0.01	0.15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11***	0.02	0.11***	0.02	0.06
학교각종검사					0.00	0.01	0.00	0.01	0.00
R2	0.03		0.05		0.17		0.17		
F	20.12***		24.04***		83.81***		66.15***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3. 청소년 인권(시민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특히 시민권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와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이나 집회등 행사 참여 정도를 고찰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앞장에서 살펴본 인권관련 의식 변수들과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변수들, 그리고 아동·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태도 등의 변수를 고찰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일련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성별, 나이, 거주지역,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의 모형1은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2는 모형1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의식 변수들만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를, 모형3은 모형1에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들과 아동·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태도 등의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모형4는 인구사회경제적 통제변수들과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의식 변수들, 그리고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들과 아동·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태도 변수들까지를 모두 투입한 최종 분석모형에 해당한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분석모형인 모형4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활동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표준회귀계수(베타: β) 값을 같이 제시하였다.

1) 사회문제 관련 단체, 집회나 행사 참여

모형1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문제를 둘러싼 단체, 집회나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의 경험이 이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text{-squared}=0.02$, $F(12, 7223)=13.06$,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B(S.E.)=-0.04(0.02)$, $p<.05$), 나이가 어릴수록 ($B(S.E.)=-0.03(0.00)$, $p<.001$), 학업성적이 중이나 ($B(S.E.)=-0.08(0.02)$, $p<.001$) 하에 ($B(S.E.)=-0.08(0.02)$, $p<.001$) 비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B(S.E.)=0.04(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적극적인 시민권 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변수들이 이들의 적극적인 시민권 활동 참여도와 고유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02$, $F(3, 7220)=4.44$, $p<.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04(0.02)$, $p<.05$). 인권현황 관련 인식이 높을수록($B(S.E)=0.05(0.02)$, $p<.01$)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문제 관련 단체, 집회, 행사 등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지지 정도가 이들의 사회문제 관련 단체, 집회, 행사 참여 등 적극적 시민권 행사 정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3$, $F(7, 7216)=34.08$, $p<.001$).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06(0.01)$, $p<.001$),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적을수록($B(S.E)=0.07(0.01)$, $p<.01$),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많이 할수록($B(S.E)=0.04(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문제 관련 단체, 집회,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B(S.E)=0.14(0.02)$, $p<.001$),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B(S.E)=0.02(0.01)$, $p<.05$)와, 가정의 지지($B(S.E)=0.08(0.01)$, $p<.001$) 등 지지의 정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5$, $F(22, 7213)=18.56$, $p<.001$). 다만 최종 모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인지하는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B(S.E)=-0.03(0.02)$, $p=.156$). <표 IV-3-1>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 정도($\beta=0.11$)가 이들이 보여주는 사회참여 정도와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beta=0.08$), 그리고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정도($\beta=0.07$) 순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3-1 결사·집회 경험률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04*	0.02	-0.05**	0.02	-0.05**	0.02	-0.05**	0.02	-0.04
나이	-0.03***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8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2	0.02	0.02	0.02	0.03+	0.02	0.03+	0.02	0.02
읍면지역	0.04+	0.02	0.04+	0.02	0.05*	0.02	0.05*	0.02	0.03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2	0.03	0.02	0.03	0.03	0.03	0.03	0.03	0.02
조손가정	0.08	0.08	0.08	0.08	0.11	0.08	0.12	0.08	0.02
기타	-0.11	0.09	-0.10	0.09	-0.07	0.09	-0.06	0.09	-0.01
학업성적(Ref:상)									
중	-0.08***	0.02	-0.07***	0.02	-0.06**	0.02	-0.06**	0.02	-0.05
하	-0.08***	0.02	-0.07***	0.02	-0.05**	0.02	-0.05*	0.02	-0.04
경제적수준(Ref:상)									
중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0.02
하	0.00	0.02	-0.01	0.02	0.01	0.02	0.00	0.02	0.00
인권교육경험	0.04***	0.00	0.04***	0.00	0.03***	0.00	0.03***	0.00	0.08
자신의인권존중정도			-0.04*	0.02			-0.03	0.02	-0.02
인권의식			0.05**	0.02			0.04*	0.02	0.03
인권효능감			0.02+	0.01			0.01	0.01	0.01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06***	0.01	-0.06***	0.01	-0.05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7***	0.01	0.07***	0.01	0.07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00	0.01	-0.01	0.01	-0.01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14***	0.02	0.15***	0.02	0.08
학교각종검사					0.04***	0.01	0.04***	0.01	0.05
청소년활동에대한국교지지					0.02*	0.01	0.02+	0.01	0.03
청소년활동에대한가정지지					0.08***	0.01	0.08***	0.01	0.11
R2	0.02		0.02		0.05		0.05		
F	13.06***		11.35***		21.07***		18.5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

모형1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이들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text{-squared}=.03$, $F(12, 7217)=20.0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B(S.E)=0.12(0.02)$, $p<.001$), 학업성적이 낮는데 비해 높은 집단이($B(S.E)=-0.09(0.02)$, $p<.001$), 그리고 인권교육 경험이 많을수록($B(S.E)=0.06(0.01)$, $p<.001$) 이들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로부터 모형1에 제시한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의식 관련 변수들이 이들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와 추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text{-squared change}=.01$, $F(3, 7214)=13.1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B(S.E)=0.06(0.02)$, $p<.01$). 그리고 인권 효능감이 높을수록($B(S.E)=0.05(0.02)$, $p<.001$) 이들은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지지 정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정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2$, $F(7, 7210)=26.82$, $p<.001$). 개별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할수록($B(S.E)=0.07(0.01)$, $p<.001$),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존중할수록($B(S.E)=0.17(0.03)$, $p<.001$) 이들의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B(S.E)=0.03(0.01)$, $p<.05$)와, 가정의 지지($B(S.E)=0.07(0.01)$, $p<.001$) 등 지지의 정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R\text{-squared}=.06$, $F(22, 7207)=20.04$, $p<.001$). <표 IV-3-2>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 정도($\beta=0.08$)와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beta=0.08$)가 이들 아동·청소년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정도와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존중 정도 ($\beta=0.06$)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3-2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12***	0.02	0.12***	0.02	0.10***	0.02	0.10***	0.02	0.07
나이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1	-0.01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읍면지역	0.05+	0.03	0.05+	0.03	0.04+	0.03	0.05+	0.03	0.02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0	0.03	0.00	0.03	0.02	0.03	0.02	0.03	0.01
조손가정	-0.08	0.10	-0.07	0.10	-0.06	0.10	-0.06	0.10	-0.01
기타	0.01	0.11	0.01	0.11	0.05	0.11	0.04	0.11	0.00
학업성적(Ref:상)									
중	-0.03	0.02	-0.02	0.02	-0.01	0.02	-0.01	0.02	0.00
하	-0.09***	0.02	-0.07**	0.02	-0.05*	0.02	-0.04+	0.02	-0.03
경제적수준(Ref:상)									
중	-0.02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0
하	-0.04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1
인권교육경험	0.06***	0.01	0.06***	0.01	0.05***	0.01	0.05***	0.01	0.11
자신의인권존중정도			0.06**	0.02			0.02	0.02	0.01
인권인식			0.01	0.02			-0.02	0.02	-0.01
인권효능감			0.05***	0.02			0.03*	0.02	0.03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00	0.02	-0.01	0.02	-0.01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1	0.01	0.02	0.01	0.01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07***	0.01	0.07***	0.01	0.06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17***	0.03	0.17***	0.03	0.08
학교각종검사					0.01	0.01	0.01	0.01	0.01
청소년활동에대한학교지지					0.03*	0.01	0.03*	0.01	0.03
청소년활동에대한가정지지					0.07***	0.01	0.07***	0.01	0.08
R2	0.03		0.04		0.06		0.06		
F	20.00***		18.70***		22.83***		20.04***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청소년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 청소년 성과지수와 의 상관관계

인권 및 시민권적 의식과 관련 경험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성과지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장에 제시한 분석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변수들과 폭력 및 차별 피해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와 인권 및 시민권 관련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과 관련 경험들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을 측정하는 변수로 인권 존중정도,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사상의 자유 보장 인식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관련 경험적 변수들로는 부모와 학교가 아동에게 보여주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에는 부모의 아동 인권 존중 정도,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 노력 정도,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 존중 정도,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 그리고 소지품 및 복장 검사 등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검사의 빈도 등을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일련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성별, 나이, 거주지역,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의 모형1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변수들과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변수들을 투입하기 전에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2는 모형1에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변수들만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를, 모형3은 모형1에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들만을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모형4는 인구사회경제적 통제변수들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변수, 그리고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태도 변수까지를 모두 투입한 최종 분석모형에 해당한다. 최종 분석모형인 모형4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표준회귀계수(베타: β) 값을 같이 제시하였다.

1)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모형1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이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2$, $F(12, 7248)=12.44$,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B(S.E.)=-0.06(0.01)$, $p<.001$),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중이나($B(S.E.)=0.02(0.01)$, $p<.05$) 하에($B(S.E.)=0.06(0.01)$, $p<.001$) 해당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 폭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변수들이 이들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추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3$, $F(3, 7245)=66.2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07(0.01)$, $p<.001$). 인권현황 관련 인식이 낮을수록($B(S.E)=-0.02(0.01)$, $p<.01$), 그리고 인권 효능감이 낮을수록($B(S.E)=-0.01(0.01)$, $p<.05$)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이들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정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2$, $F(5, 7243)=35.45$, $p<.001$). 개별 변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03(0.01)$, $p<.001$),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적을수록($B(S.E)=0.03(0.00)$, $p<.001$),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03(0.00)$, $p<.001$),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많이 할수록($B(S.E)=0.02(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 폭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폭력 경험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6$, $F(20, 7240)=21.31$, $p<.001$). 다만 최종 모형에서 인권 효능감 변수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S.E)=-0.01(0.01)$, $p=.174$). <표 IV-4-1>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beta=-0.11$)가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경험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학생 비밀보장 정도($\beta=0.06$), 그리고 학교 의사결정 과정 학생 참여 존중 정도($\beta=0.05$), 학교의 각종 검사($\beta=0.05$) 순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IV-4-1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06***	0.01	-0.06***	0.01	-0.06***	0.01	-0.06***	0.01	-0.11
나이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5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읍면지역	0.00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0	0.01	-0.01	0.01	0.00	0.01	-0.01	0.01	-0.01
조손가정	-0.02	0.03	-0.03	0.03	-0.02	0.03	-0.02	0.03	-0.01
기타	-0.03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1
학업성적(Ref:상)									
중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하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1	-0.01
경제적수준(Ref:상)									
중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하	0.06***	0.01	0.04***	0.01	0.05***	0.01	0.05***	0.01	0.07
인권교육경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3
자신의인권존중정도			-0.07***	0.01			-0.06***	0.01	-0.11
인권의식			-0.02**	0.01			-0.02*	0.01	-0.03
인권효능감			-0.01*	0.01			-0.01	0.01	-0.02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03***	0.01	-0.01*	0.01	-0.03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3***	0.00	0.02***	0.00	0.06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03***	0.00	-0.02***	0.00	-0.05
학교의학생생활동존중					0.01	0.01	0.01	0.01	0.02
학교각종검사					0.02***	0.00	0.02***	0.00	0.05
R2	0.02		0.05		0.04		0.06		
F	12.44***		23.46***		19.41***		21.31***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주관적 행복감

모형1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8$, $F(12, 7234)=50.74$, $p<.001$). 개별 변수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B(S.E)=-0.06(0.00)$, $p<.001$), 가족유형이 양부모가정인 경우에 비해 기타 유형인 경우($B(S.E)=0.20(0.09)$, $p<.05$), 학업성적이 중간정도이거나($B(S.E)=-0.05(0.02)$, $p<.05$) 낮은 경우에($B(S.E)=-0.16(0.02)$, $p<.001$) 비해 높은 집단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정도이거나($B(S.E)=-0.11(0.02)$, $p<.001$) 낮은 경우에($B(S.E)=-0.28(0.02)$, $p<.001$) 비해 높은 집단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변수들이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과 추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9$, $F(3, 7231)=276.06$, $p<.001$). 개별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B(S.E)=0.32(0.02)$, $p<.001$), 인권 효능감이 높을수록($B(S.E)=0.12(0.01)$, $p<.001$)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은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이들의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 change}=.09$, $F(5, 7229)=159.06$, $p<.001$). 개별 변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S.E)=0.32(0.01)$, $p<.001$),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S.E)=0.07(0.01)$, $p<.001$),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S.E)=0.06(0.02)$, $p<.0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적게 할수록($B(S.E)=-0.02(0.01)$, $p<.05$) 아동과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21$, $F(20, 7226)=93.38$, $p<.001$). 최종 모형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여준 반면 ($B(S.E)=-0.04(0.01)$, $p<.01$),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여보장 정도($B(S.E)=0.02(0.01)$, $p=.074$), 학교의 학생회 활동 존중 정도($B(S.E)=0.04(0.03)$, $p=.058$),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B(S.E)=-0.02(0.01)$, $p=.064$) 등의 변수는 최종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표 IV-4-2>에서 요인변수별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정도($\beta=0.20$)가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beta=0.18$)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주관적 행복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B	S.E.(B)	B	S.E.(B)	B	S.E.(B)	β
성별(Ref:남성)									
여성	-0.02	0.02	-0.03*	0.01	-0.05***	0.01	-0.04**	0.01	-0.03
나이	-0.06***	0.00	-0.05***	0.00	-0.06***	0.00	-0.06***	0.00	-0.14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1	0.02	0.02	0.02	0.02	0.02	0.03+	0.02	0.02
읍면지역	0.02	0.02	0.02	0.02	0.00	0.02	0.01	0.02	0.01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3	0.03	-0.01	0.02	-0.02	0.02	-0.01	0.02	-0.01
조손가정	0.03	0.08	0.06	0.08	0.03	0.08	0.05	0.08	0.01
기타	0.20*	0.09	0.18*	0.08	0.21*	0.08	0.19*	0.08	0.02
학업성적(Ref:상)									
중	-0.05*	0.02	-0.01	0.02	-0.01	0.02	0.00	0.02	0.00
하	-0.16***	0.02	-0.08***	0.02	-0.09***	0.02	-0.06**	0.02	-0.04
경제적수준(Ref:상)									
중	-0.11***	0.02	-0.08***	0.02	-0.07***	0.02	-0.06***	0.02	-0.04
하	-0.28***	0.02	-0.21***	0.02	-0.21***	0.02	-0.17***	0.02	-0.10
인권교육경험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자신의인권존중정도			0.32***	0.02			0.24***	0.02	0.18
인권의식			0.01	0.02			-0.02	0.02	-0.01
인권효능감			0.12***	0.01			0.08***	0.01	0.08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32***	0.01	0.23***	0.01	0.20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2+	0.01	0.00	0.01	0.00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07***	0.01	0.02+	0.01	0.02
학교의학생회활동존중					0.06**	0.02	0.04+	0.02	0.02
학교각종검사					-0.02*	0.01	-0.02+	0.01	-0.02
R ²	0.08		0.17		0.17		0.21		
F	50.74***		100.44***		86.51***		93.38***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3) 자살 생각

자살 생각 변수의 경우 이산변수(binary variable)인 관계로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1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경험 여부가 이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R\ Chi-squared=233.49, df=12,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B(S.E)=0.52(0.05), p<.001$), 읍면지역 거주에 비해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B(S.E)=-0.16(0.08), p<.05$),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은 학생의 경우($B(S.E)=0.47(0.07), p<.001$),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중간 정도나($B(S.E)=0.13(0.06), p<.05$) 낮은 경우에($B(S.E)=0.54(0.08),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는 모형1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변수들이 이들의 자살생각 경험 여부와 추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Wald\ Chi-squared=258.39, df=3, p<.001$). 구체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73(0.06), p<.001$), 인권현황 관련 인식이 높을수록($B(S.E)=0.27(0.07), p<.01$), 그리고 인권 효능감이 낮을수록($B(S.E)=-0.32(0.05), p<.001$)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모와 학교가 아동의 인권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의식이 이들의 자살생각 경험 여부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ald\ Chi-squared=321.88, df=5, p<.001$). 구체적으로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82(0.05), p<.001$),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적을수록($B(S.E)=0.09(0.04), p<.05$),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B(S.E)=-0.16(0.04), p<.001$),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복장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많이 할수록($B(S.E)=0.10(0.03), p<.01$) 아동과 청소년은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경험과 관련하여 최종모형인 모형4는 모형1에서 모형3까지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LR\ Chi-squared=683.96, df=20, p<.001$). 다만 학교의 학생 비밀 보장 정도와($B(S.E)=0.05(0.04), p=.297$)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정도는($B(S.E)=-0.08(0.05), p=.070$)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4-3 자살 생각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B)	95% CI	B	S.E.(B)	95% CI	B	S.E.(B)	95% CI	B	S.E.(B)	95% CI
성별(Ref:남성)												
여성	0.52***	0.05	(0.41, 0.63)	0.54***	0.06	(0.43, 0.65)	0.62***	0.06	(0.5, 0.73)	0.58***	0.06	(0.46, 0.69)
나이	-0.02	0.02	(-0.05, 0.02)	-0.04*	0.02	(-0.07, -0.01)	-0.03+	0.02	(-0.07, 0)	-0.04*	0.02	(-0.08, -0.01)
지역규모(Ref:대도시)												
중소도시	0.00	0.06	(-0.11, 0.12)	-0.03	0.06	(-0.14, 0.09)	-0.04	0.06	(-0.15, 0.08)	-0.04	0.06	(-0.16, 0.08)
읍면지역	-0.16*	0.08	(-0.31, 0)	-0.17*	0.08	(-0.33, -0.01)	-0.12	0.08	(-0.28, 0.04)	-0.14+	0.08	(-0.3, 0.02)
가족유형(Ref: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0.08	0.09	(-0.26, 0.11)	-0.10	0.10	(-0.29, 0.08)	-0.10	0.10	(-0.29, 0.09)	-0.10	0.10	(-0.29, 0.09)
조손가정	-0.11	0.30	(-0.7, 0.48)	-0.19	0.31	(-0.8, 0.42)	-0.06	0.30	(-0.66, 0.53)	-0.10	0.31	(-0.71, 0.5)
기타	-0.76+	0.39	(-1.53, 0)	-0.73+	0.40	(-1.51, 0.06)	-0.81*	0.40	(-1.59, -0.04)	-0.72+	0.40	(-1.5, 0.07)
학업성적(Ref:상)												
중	0.06	0.07	(-0.08, 0.19)	0.00	0.07	(-0.14, 0.14)	-0.01	0.07	(-0.15, 0.13)	-0.02	0.07	(-0.16, 0.12)
하	0.47***	0.07	(0.33, 0.61)	0.34***	0.07	(0.19, 0.48)	0.33***	0.07	(0.19, 0.48)	0.30***	0.08	(0.15, 0.44)
경제적수준(Ref:상)												
중	0.13*	0.06	(0.01, 0.25)	0.07	0.06	(-0.05, 0.19)	0.04	0.06	(-0.08, 0.16)	0.02	0.06	(-0.1, 0.14)
하	0.54***	0.08	(0.38, 0.69)	0.37***	0.08	(0.22, 0.53)	0.37***	0.08	(0.21, 0.53)	0.29***	0.08	(0.13, 0.45)
인권교육경험	0.01	0.02	(-0.02, 0.04)	0.03	0.02	(-0.01, 0.06)	0.03	0.02	(-0.01, 0.06)	0.03+	0.02	(-0.01, 0.06)
자신의인권존중정도				-0.73***	0.06	(-0.86, -0.61)				-0.50***	0.07	(-0.64, -0.37)
인권의식				0.27***	0.07	(0.14, 0.39)				0.33***	0.07	(0.2, 0.46)
인권활동강				-0.32***	0.05	(-0.41, -0.23)				-0.20***	0.05	(-0.3, -0.1)
부모의아동인권존중							-0.82***	0.05	(-0.92, -0.72)	-0.67***	0.05	(-0.78, -0.56)
학교의학생비밀보장							0.09*	0.04	(0, 0.17)	0.05	0.04	(-0.04, 0.13)
학교정책학생참여존중							-0.16***	0.04	(-0.24, -0.07)	-0.08+	0.05	(-0.17, 0.01)
학교의학생활동존중							-0.06	0.08	(-0.22, 0.1)	0.00	0.08	(-0.17, 0.16)
학교각종검사							0.10**	0.03	(0.03, 0.17)	0.09**	0.03	(0.03, 0.16)
χ^2	233.49***			510.68***			579.68***			683.9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제 V 장

논의 및 결론

제 V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지표들과 갖는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둘째,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행사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다양한 성과지표들과 이들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선형 및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tata MP 1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과 부모와 학교가 이들의 인권 관련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님과 선생님 학대 피해 경험,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그리고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등이 모두 아동·청소년기 인권의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을 주장한 유문무(2013)의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부당한 차별피해의 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 유성렬(2013)의 연구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학교가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인권태도 관련 변수들도 이들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과 일관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 및 사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자란 청소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며(임유진, 2001), 이와 같은 내적 요인들이 결국 인권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김혜정, 2002; 박봉규, 2011; 유성렬, 2013; 윤정아, 2015).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존중적인 태도가 이들의 인권의식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성장하는 주요한 환경의 하나인 학교에서 존중받고 지지받는 일상의 경험이 이들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자영, 2012; 김현경, 김신영, 2015). 또한, 친인권적인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영신, 박가나 (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참여를 장려하며, 독립적인 학생회 활동을 장려하는 등 이들의 긍정적 시민권 및 참여의 경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권의식과 관련한 분석결과에서 특히 부모가 아동의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 학교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동의 인권의식 신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사상의 자유행사와 관련한 인권 효능감 등의 측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개별 변수들 중에서 이들 두 개의 변수들은 인권 교육 경험에 비해서도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희석하는 결과라기보다는 학습으로서의 인권교육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적인 인권교육과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도 의미있는 변수들이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부모의 아동 인권 존중 정도,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 보장정도 등이 더욱 의미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집회 및 결사의 경험 등 적극적인 행동 경험이나 청소년 자치기구 관여 정도 등의 시민권적 권리 행사의 변수와 관련하여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 중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나 사상의 자유행사에 대한 인권 효능감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이들의 인권의식이 구체적인 시민권적 권리 행사로 직접 연결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참여와 자치에 대한 존중의 경험은 실제로 좀 더 적극적인 시민권적 권리행사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정도와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관여 정도 등의 변수에서 동일한 결과를 발견되었다.

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 일반적인 인권의식의 성장 및 발달과 더불어, 학교와 가정을 포함한 일상 속에서 참여와 자치 등 시민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지받고 그러한 행동이 존중받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교내 학생회 활동에 대해 학교가 존중하는 정도와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드러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권의식, 인권관련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의식과 더불어 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경험하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지표로서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정적 지표로서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및 자살 생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먼저 긍정적 지표에 해당하는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시민권 경험의 측면에서 가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는 정도와 인권의식의 측면에서 본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정도에 의한 인권의식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에서의 시민권적 경험과 관련한 변수들, 즉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나 학생회 활동에 대한 존중 정도, 학생의 비밀보장 정도 등의 변수들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 생각과 관련한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는 인권관련 인식이나 일상적인 경험의 유의미함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경험보다는 개인과 가족 차원의 일상적인 인권적 존중과 지지의 경험과 평소 개인의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교 폭력 경험 정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시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존중 정도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이나 부모의 존중 및 지지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정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학교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학교폭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유문무, 2013).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에 대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인 경험으로서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권의식과 시민권적 참여의 경험에 인권교육의 경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인권교육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과 시민권적 경험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적이고 존중적인 태도를 경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지지와 존중의 경험은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결사 및 집회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시민권적 권리 행사를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회의, 학생회 활동 등의 경험에서 지지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장차 건강하고 적극적인 시민권적 권리행사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개입을 위해 이들의 인권 및 시민권적 의식과 경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현 발달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인권 및 시민권적 경험이 이들 지표들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식도 의미있는 요인들이었으나, 더욱 중요하게는 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경험하는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주관적 행복감, 그리고 자살 생각 등의 변수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옥 (2012).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반 편견 및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 연구**, 5(1), 19-43.
- 강명숙 (2012). 인권교육 연구 동향: 최근 5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과 인권교육 연구**, 5(3), 1-14.
-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도환 (2008).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 남진열 (2014). 후기청소년의 생활약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 복지연구**, 16(4), 173-193.
- 김선필, 염미경 (2013). 학생의 인권감수성 분석과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23-49.
- 김승권 (2012). 아동권의 국제적 관점과 한국의 현실.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와 복지권 쟁점과 과제**, 1-33.
- 김아영 (2012). **청소년의 인권관련 경험에 따른 자존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21(3), 85-100.
- 김원철 (2001). **사회적지지가 소아당뇨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3(1), 5-40.
- 김현경, 김신영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7(2), 29-52.
- 김혜정 (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원, 한종철 (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33-246.
- 민하영, 유안진 (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10, 279-293.
- 박범철 (2014).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한성어문학회**, 33, 113-159.
- 박봉규 (2011). 인권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 박재숙 (2007). **중학생의 인권민감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1), 35-59.
- 변용찬 (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아동권리연구**, 3(2), 43-68.
- 성정숙 (1999). 학교에서의 아동권리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3(1), 61-75.
- 송은아 (2005). **청소년 인권의식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 정익중 (2014).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유문무 (2013). 학교폭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Holism을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7(3), 105-125.
- 유성남 (2008).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Ⅲ: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3-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pp. 465-489). 서울: 보건복지부·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윤정아 (2015).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배근 (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357-379.
- 이수연,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1), 65-89.
- 이순자, 나성식, 김현경, 이효숙 (2014). **아동복지론**. 경기: 정민사.
- 이순형, 민하영, 이소은, 이완정, 황혜신, 이강이 외 (201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권발달연구**, 6(2), 103-120.
- 이용교 (1999).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10, 1-25.
- 이용교 (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복지.
-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13.
- 이지수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인권의식. **아동권리연구**, 10(3), 461-485.
- 이혜원 (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 집문당.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6). **인권법**. 경기: 아카넷.
- 임유진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원, 이양희 (2015). 비장애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인권감수성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아동인권연구**, 6(1), 1-26.
- 정건희 (2009). 청소년자치활동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2(3), 82-106.
- 정석원, 현승숙 (2012). 청소년의 학생인권경험이 자존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18, 69-89.
- 정준교 (2002). 학교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6(1), 89-108.
- 정지석 (2012).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2003). 학생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접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37-52.

- 천정웅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보고 14-R14-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봉선, 아영아 (2012). 인권감수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307-335.
- Stata Corp. (2013).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3.0*. College Station, TX: Stata Corporation.
- Zellman, Gail, and David O. Sears (1971) Childhood origins and tolerance for dissen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 109-136.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ercep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ir civic activity experiences, and various outcom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5, we first analyzed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percep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n, we analyzed factors associated with civic activity experienc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astly, we conducted a series of analy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outcom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human rights perception and civic activity experience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human rights was associated with their parents' and schools'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their children and adolescents. Also, it appeared that, even though human rights perception related factors were relevant contributors in the mode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ivic activity experiences, level of respect that parents and schools showed toward their children's human rights and level of invol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at schools allocate in school related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even more meaningful contributors. Lastly, myriad of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ather than human rights perception were meaningfully associated with various outcomes such as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happiness, and experiences of violence and abuse.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Key Words : human rights perception, civic rights, human rights efficacy human rights related experiences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Ⅶ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Ⅶ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할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란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 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70-0 94330

979-11-5654-059-5 (세트)